

KT&G TCFD 대응 전략 및 계획

Version 2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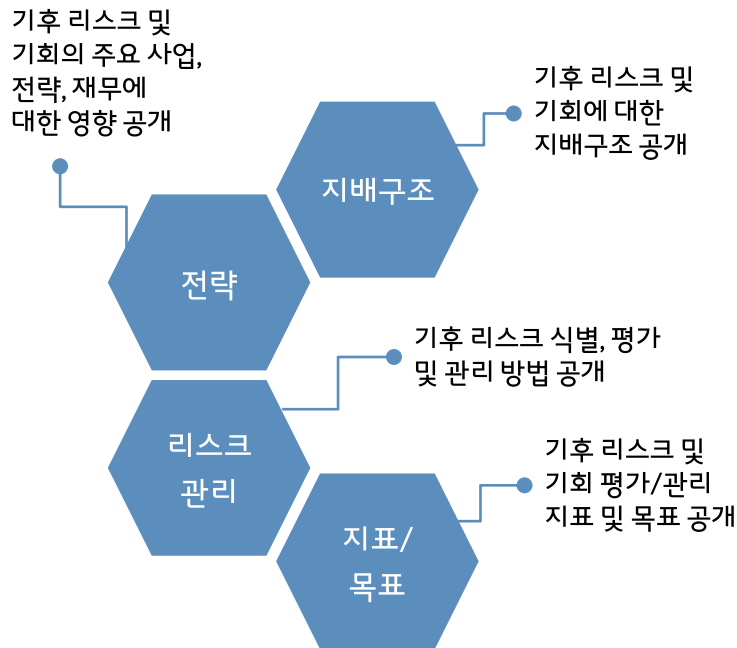
Alignment & Plan

2021.05.12

본 자료는 당사 사업 영위에 따른 리스크 분석, 재무 영향 등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당사 내·외부 경영 환경 변화 등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로 불확실성이 내포된 자료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과거 자료를 기초로 하거나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본 자료와 해당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G는 '20년 TCFD 지지 선언에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잠재적 재무 영향을 공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 준수,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CFD 권고안



KT&G 대응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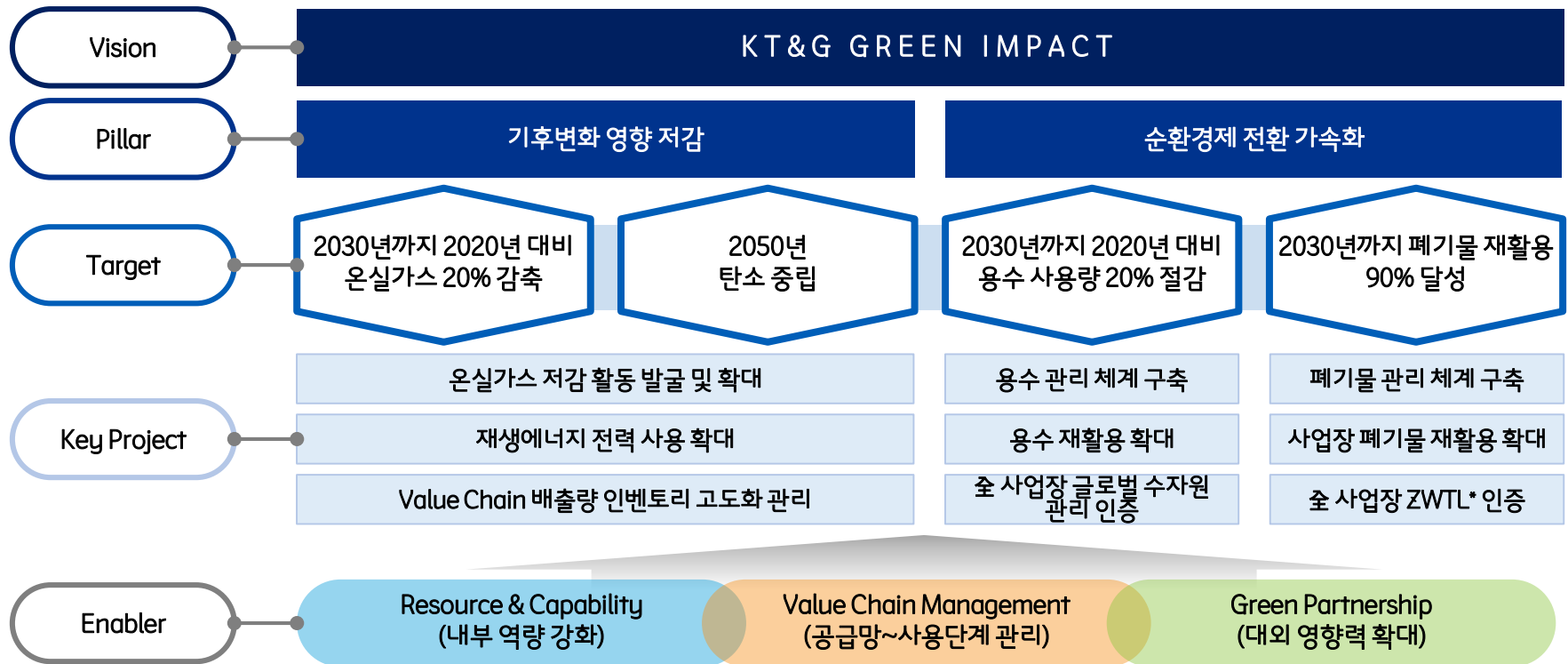
TCFD는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족한 조직으로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KT&G는 국제사회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TCFD 권고안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위해 TCFD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KT&G 환경경영 비전 및 추진 체계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전환 기반의 KT&G 중장기 환경전략 추진 방향성을 도출하고 Green Impact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는 환경경영 비전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환경경영 비전 및 추진 체계



KT&G는 자사 및 이해관계자의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업 운영 전반 및 Value Chain 상에서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용수 및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내부 역량 강화, Value Chain 관리 및 대외 파트너십 구축을 하겠습니다.

* Zero Waste to Landfill

(1) 지배구조(Governance)

KT&G는 중장기 기후변화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전사관점 통합 논의를 위한 Control Tower로 전략기획본부 산하 ESG 기획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조직 및 R&R



【ESG/환경 분야 Task Force】



이사회

‘20년 9월 이사회에 ESG 및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전사 ESG 추진 방향성에 따라 매년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방향성 검토 및 주요 과제 승인, 실행을 관리·감독을 합니다.

ESG 경영 위원회

전사 사업부문 임원진으로 구성된 최고 경영진 의사결정 지원조직으로 전사 ESG/환경 분야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합니다.

ESG 기획팀

CFO 직속 ESG Control Tower로 신설된 ESG 기획팀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환경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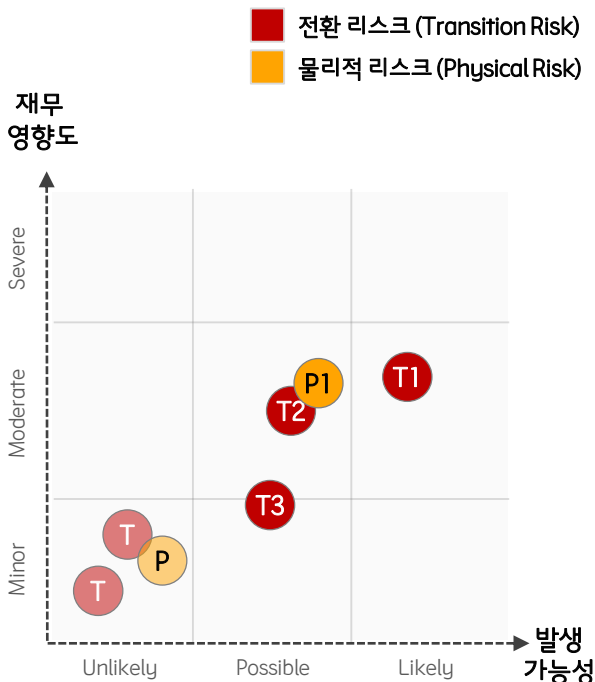
ESG/환경 분야 Task Force

전 사업분야 working level 협의체로 구성된 Task Force는 주요 ESG 이슈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전략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2) 전략(Strategic)

KT&G는 기후변화 리스크 발생 요인 및 자사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정책 및 규제 (T1)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출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시장 (T2)

LNG, 전력,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유탐배 생산 비용 증가,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도 예상됩니다.

평판 (T3)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용수 확보 경쟁 심화 등 물 집약적 산업인 담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 (P1)

고온, 태풍, 호우 등 기상 이변으로 유탐배 수확량 감소 또는 품질 변동, 유통망 및 재고 관리 어려움 등의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KT&G 리스크 경감 방안

BAU(Business-as-usual) 배출량을 산정하여 할당량 대비 부족분을 예측하고 배출권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감축 수단을 선제적으로 실행하여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전사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내부 활동 추진 및 투자를 진행합니다.

용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국내외 소재 사업장 별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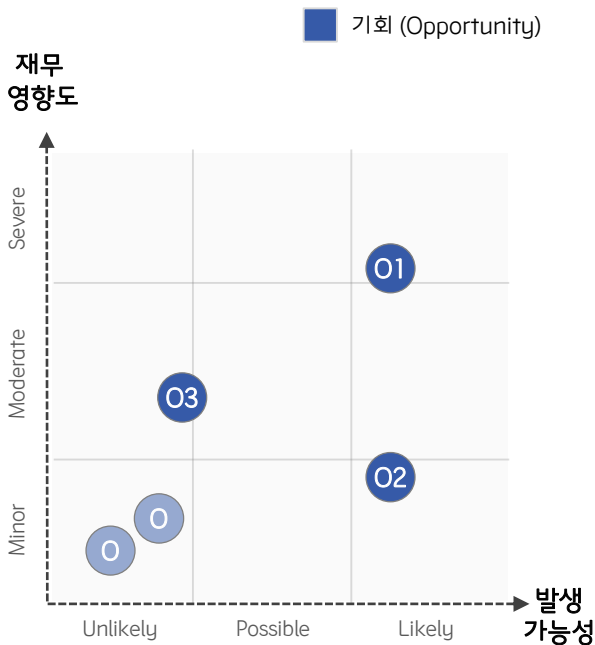
국내외 유탐배 및 주요 일반 재료품 수급 지역의 기상 패턴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공급망 타격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KT&G는 전사 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환, 물리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 요인 별 발생 가능성과 사업 연계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에 따라 중대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전사 관점의 통합 논의,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KT&G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영역과 리스크 경감 방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2) 전략(Strategic)

KT&G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가 자사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회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 기회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기회 식별 및 평가

제품 및 서비스 (O1)

제품 친환경성 제고를 통한 저탄소 제품 판매 확대, 폐기물 저감 활동 등으로 소비자 친환경 제품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Value Chain 전반의 자원 순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복탄력성 (O2)

기후변화/재생에너지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함으로써 중장기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및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원 효율성 (O3)

생산 설비 성능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구매 비용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KT&G 기회 실현 방안

NGP 불용 디바이스 재활용 및 친환경 재료 적용 확대를 통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매립 폐기물 제로 인증 추진을 통해 쉐 과정 관점에서의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CDP Climate Change, CDP Water Security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대외 평가 대응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관리 등 환경분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역량을 배양 및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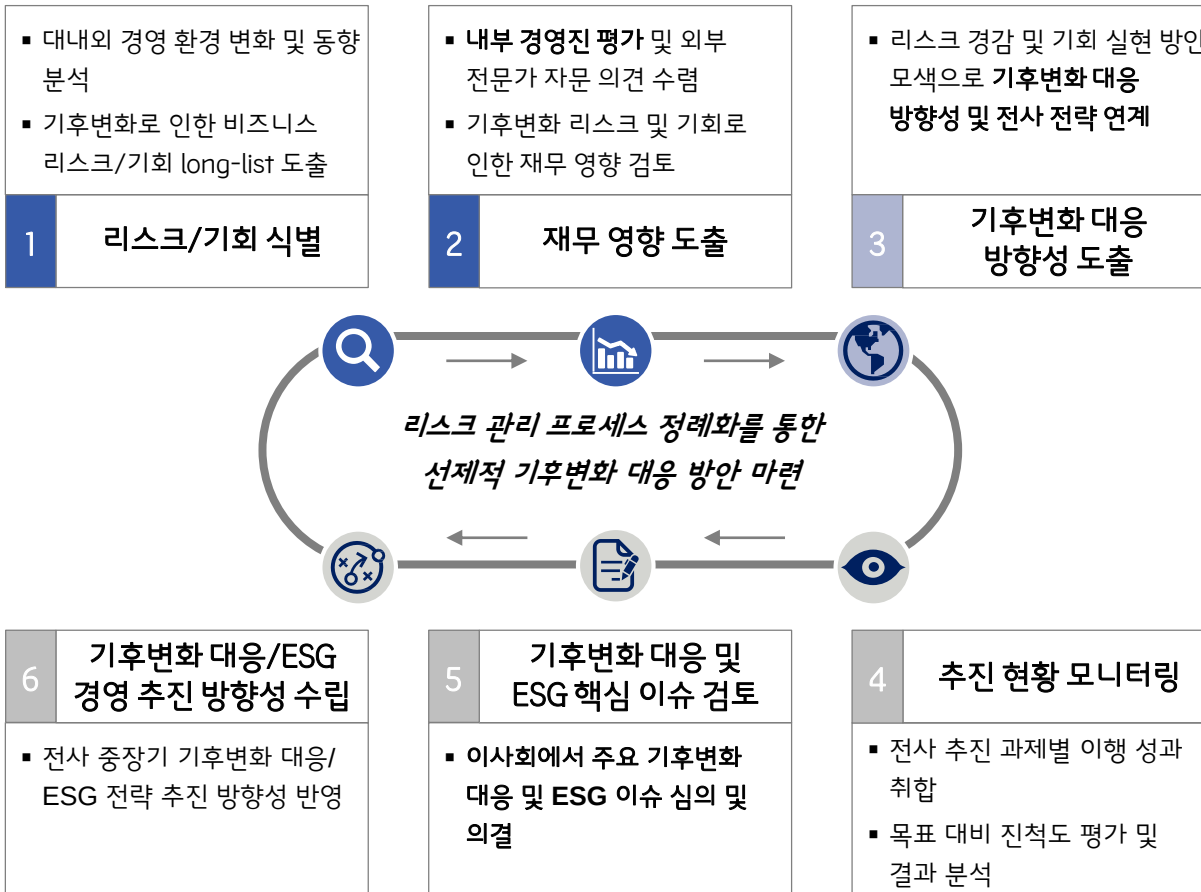
사업장 설비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앞담배 농가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전 Value Chain의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KT&G는 전사 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고, 기회 요인 별 발생 가능성과 사업 연계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에 따라 중대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전사 관점의 통합 논의,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KT&G가 우선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회 영역과 실현 방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3)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KT&G는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전사 전략 연계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 리스크 및 기회 식별 ■ : 관리 및 대응 ■ : 모니터링 및 평가

리스크 및 기회 식별

KT&G는 모든 경영 의사결정 사항에 기후변화 이슈가 고려될 수 있도록 매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실시합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long-list를 구성하여 내부 평가 의견수렴, 내부 경영진 검토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합니다.

관리 및 대응

경영진은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대응 방향성과 전사 전략 연계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 투자 지출 또는 자원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전사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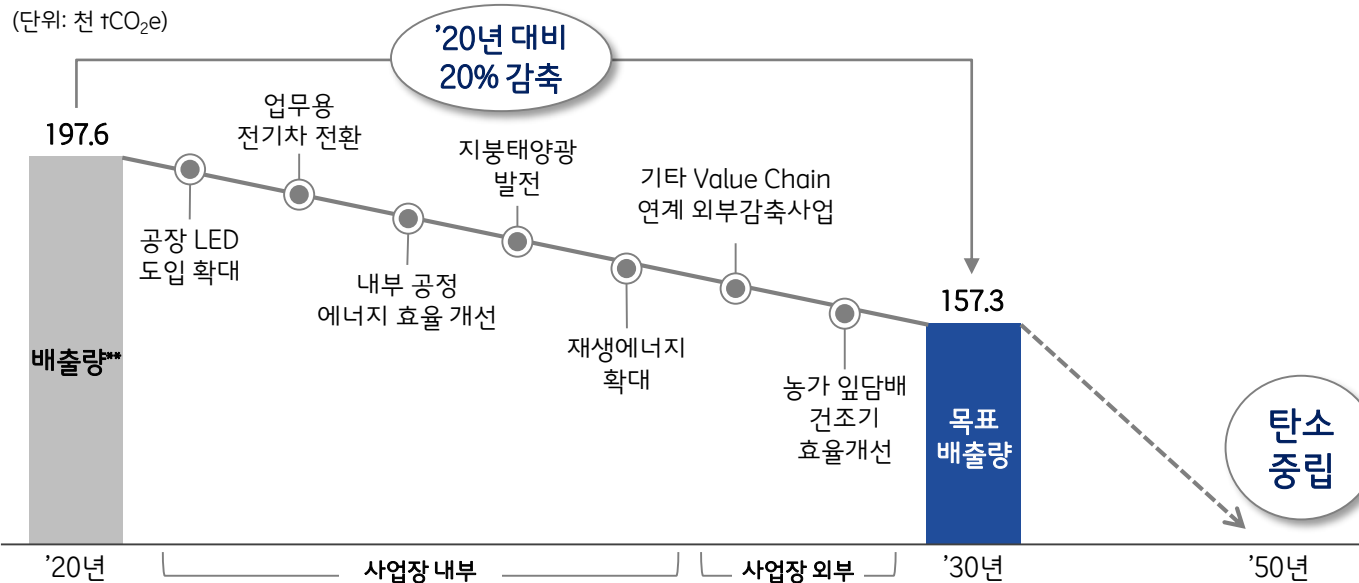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가 전사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검토하여 KPI, 조직 경영 성과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4) 목표 및 지표(Targets/Metrics)

KT&G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SBT*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20% 감축 및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Scope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

“ '30년까지 '20년 대비 사업장 및 전 Value Chain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및 '50년 탄소 중립 달성 ”



Key Consideration

- ✓ 사업장 내부 및 Value Chain
- ✓ 단기 추진 가능성
- ✓ 온실가스 감축 Potential
- ✓ 투자비 대비 감축 경제성
- ✓ 내부 Resource Cap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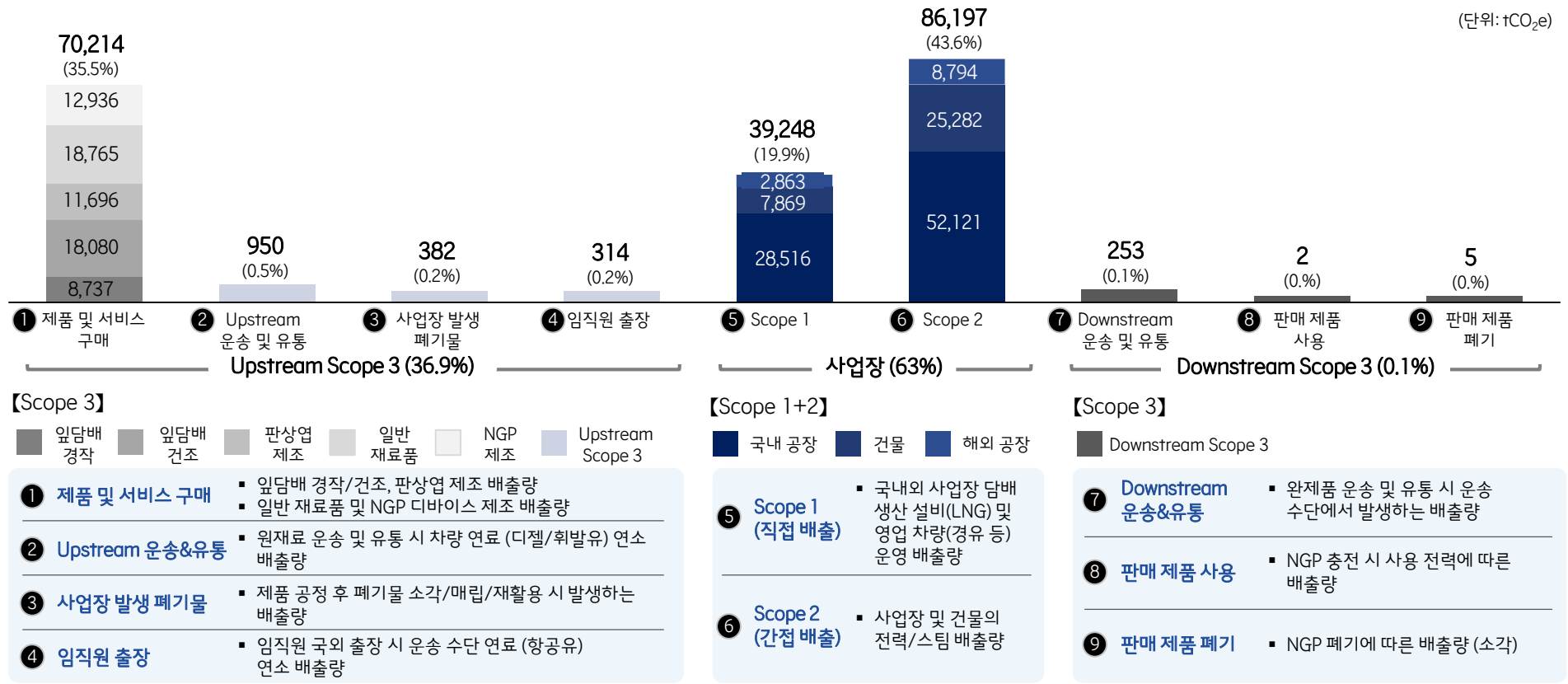
** 전 Value Chain 배출량 기준, Scope 3 배출량은 향후 데이터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제3자 검증을 받지 않은 수치임

KT&G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낮게 억제하고 1.5℃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에 따라 과학 기반 감축 목표 (SBT)를 설정하였습니다. '20년 대비 '30년까지 전 Value Chain에서 20% (Scope 1+2 25%, Scope 3 12.3%)를 감축하고 '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아이템 별 단기 추진 가능성 및 감축 포텐셜,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장 내부 공정 내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전력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 목표 및 지표(Targets/Metrics)

KT&G의 '20년 기준 쏘 Value Chain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 총량은 197,565톤으로 사업장 내 배출이 63%, 사업장 외 Value Chain 배출(Scope 3)이 37% 차지하며 인벤토리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 Value Chain 온실가스 배출량*('20년)



KT&G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품 생산에 따른 사업장 내부 온실가스 배출 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소비자 사용 단계까지 Scope 3 배출량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향후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Scope 3 배출량은 향후 데이터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제3자 검증을 받지 않은 수치임

KT&G는 TCFD 권고안에 따른 이행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KT&G Report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TCFD 대응 강화를 위한 Next Step

1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e.g. IPCC, IEA 등)별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재무적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중장기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지역별/업종별/사업장 내외부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취약도(vulnerability) 및 대응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Value Chain 배출량(Scope 3) 산정 방법을 고도화하여 KT&G 비즈니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확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

매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기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